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적 토종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병원법당

환자-보호자-의사-간호사들의 귀의처

“마음 다스리면 병마 이겨요”

서울 가락동 국립경찰병원. 새벽 5시. 오늘도 어김없이 김병현(서울 가락동)씨가 생수통을 어깨에 메고 법당으로 들어선다. 잠시 뒤엔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가 택시에서 청수를 가져와 부처님전에 올린다.

다기에 청수를 채우고 향 초에 불을 밝히자 병원법당에는 환자가족들이 10명 남짓한 법당을 가득 메운다. 이어 한마음봉사회(회장 변운연) 회원 20여명이 들어서자 법당엔 활기가 넘친다. 예불을 마친 회원들은 경찰병원 경승실장 해광스님(봉천동 참나선원장)의 상좌인 무관스님과 하루일정을 점검한다.

맨 먼저 시작하는 일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서를 대여해주는 일. 정진숙 총무와 진주지위로 회임과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복으로 갈아입고 법당 옆 4천여권이 소장된 책장으로 가서 환자들이 읽을 책을 업선한 뒤 2대의 수레에 싣고 병실로 향한다.

“불교법당입니다. 책왔어요.”

병실문을 열고 자원봉사자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 환자들은 침대위에서 내려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며 즐거워 한다. 하루에 대여되는 책은 1백50여권.

자원 봉사자들은 병실을 돌며 단주를 끼워주고 간단한 쾌유기도와 상담으로 병마의 시름을 덜어준다. 또 수술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도를 올린다.

경찰병원 736호 조계종사태 당시 창사로 진입하고가사리에서 추락해 중경상을 입은 경찰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실이다. 병실에는 입내규팀장(36세) 김민영(26세) 신재경(28세)씨 등 3명의 경찰과 가족이



국립경찰병원 지도법사 정진숙님이 봉사자들과 환자를 위하여 쾌유와 재행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아미타호스피스회에 소속한 자원봉사자가 청주 하나병원에서 임종간호하는 장면.

아미타호스피스회 임종간호 전국화

고제 유일의 호스피스 전문 교육·봉사단체로서 충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아미타호스피스회(회장 여현정법사)가 최근 전국 단위로 활동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조계종 충북 불교자원봉사 교육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본회는 임종 환자들이 타종교 자원봉사자들의 간호를 받고 임종직전에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겪는 사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 호스피스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위탁교육 및 봉사단 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청원지역서 160여명 활동중

올부터 전국사찰 봉사단 구성 지원

지난 97년 4월 출범한 아미타호스피스회는 그간 6회의 호스피스 케어 교육을 통해 2백 20명의 수료생을 배출, 이중 1백60여명이 청주·청원지역 병원에서 활발한 임종간호 활동을 펼쳐 불교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대표적 봉사단체로 발돋움했다.

여현정 법사는 “상당수의 불자 임종환자들이 타종교의 호스피스 봉사자로부터 간호를 받고 개종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안락한 마음으로 극락왕생 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포교차원에서 불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미타호스피스회는 ‘불교 임종의 집’을 추진하는 한편 <불교 호스피스 교육자료집>과 신행수기집 <아름다운 임종>의 발간을 준비중이며, 제7기(3월10일~4월22일)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0431)254-2258 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병원법당 및 불자회 현황

법당·불자회	전화번호
국립의료원법당	(02)2265-9131
국립경찰병원법당	(02)430-2555
국립보훈병원법당	(02)2225-0361
국립중앙병원법당	(02)651-0955
서울대병원법당	(02)760-3176
삼성의료원법당	(02)3410-2114
서울중앙병원법당	(02)2224-7892
동국대경주병원법당	(0561)770-8237
관주불교병원법당	(062)234-1511
영남대의료원법당	(053)620-4372
인원길병원법당	(032)460-3114
동아대의료원법당	(051)240-2111
부산대병원법당	(051)254-0171
부산백병원법당	(051)894-3421
부산시립의료원법당	(051)850-0243
영광의료재단법당	(053)655-0300
동국대포항병원법당	(0562)73-8111
경북대병원법당	(053)420-5125

도서대어-이·미용봉사-쾌유기도 '분주' 대형병원 60여곳중 12곳만 법당 갖춰 불자봉사회 병원마다 관심가져야

있다. 스님은 “몇번 병실앞까지 왔다가 되돌아 가곤 했다”며 “불교내부의 문제”라면서 “이런 고통을 드러 죄송하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신재경 경장은 “종단이 정상화돼서 다양이다”고 말했다.

봉사단은 1시간 반가량 책대어가 끝나면 하이제제과(송파구 올림픽아파트상가내)에서 보시한 갠구어번 재파방 1백여개를 병실마다 배달한다. 하이제제과(02-403-4545)는 명절날도 포박포박 빵을 보내준다.

10시부터는 세면장에 차린 간이마용실에서 이미용봉사가 한창이다. 반상급(개봉종) 김현옥(신수동) 강유경(회곡동) 신운선(목2동)보살은 전직 마용사로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 9시까지 법당으로 출근하여 10시부터 5시까지 5백여 환자의 머리를 책임져주고 있다.

봉사자들이 병원을 떠나



국립경찰병원 환자 쾌유법의 장면.

대한불교부인회(회장 구자순)는 매일 정기적으로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신명을 실천하고 있다.

법당이 없는 중·소형 병원에도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방문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병원포교에는 환자들이 읽을 불서나 교계신문 등 간행물을 보급하기 위한 법공양 운동의 전개가 중요하다.

공공시설인 국립병원에도 불교법당은 5곳에 불과하다. 국립병원의 경우 관심 갖고 찾아가 사명감으로 희생 봉사해야 공간이 확보되는 데 이를 감수할 법사가 없다.

94년 비구니 지문스님은 8백40개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보훈병원에 견학 갔다가 그 자리에 터를 잡고 그해 7월16일 10평 공간에 법당을 마련했다. 그리고 직원불자회와 연대하여 도서대어 병실 쾌유 기도활동 등을 통해 영역을 넓혀갔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11월 27일 5주년을 맞아 69평의 대규모 법당을 마련해 부처님을 정안하는 결실을



국립경찰병원 한마음봉사회원들이 간이독서대를 정리하고 있다.



《불설비유경》의 내용을 그린 해인사 벽화.

‘피할 수 없는 죽음’ 상징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27

밤

“옛날 어떤 사람이 황량한 벌판에서 미친 코끼리에 쫓기다 우물을 발견하고 등나무 넝쿨을 타고 우물속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는 독사들이 입을 날름거리고 있었다. 다시 오리라 했지만 물결에는 명멸하게 불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간신히 넝쿨에만 몸을 의지할 뿐이었다. 이 때 어딘인가 흰 쥐 한마리와 검은 쥐 한마리가 나타나 넝쿨을 갠기 시작했다. 질대질대의 위험한 지경인데 마침 머리위의 벌집에서 꿀이 떨어져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사람

은 모든 위험을 잊고 꿀의 달콤한 맛에 정신없이 도취되었다.”

《불설비유경》에 나오는 인간 삶의 비유이다. 여기서 황량한 벌판은 무명장야, 코끼리는 무상, 우물은 생사(生死), 넝쿨은 생명줄,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 들불은 늙고 정진, 굶은 오족(五欲)을 나타낸다. 왼쪽 벽화는 허망하고 짧은 생을 사는 인간이 오욕에 취해 무명속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여기서 독사 즉 밤은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구약성서에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를 간계로써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을 뱀이 나온다. 선악과를 따먹기전에는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던 인간이 뱀의 유혹에 따라 타락과 원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오른쪽 그림은 그러한 내용을 그린 미켈란젤로의 후후의 명작이다. 화필(예천 법화암 주지)



미켈란젤로 작 ‘원죄와 낙원 추방(부분)’. 1508~12년 비티칸 시스티나성당 소장.